



공급망 지속가능성

2025년 주요 트렌드



LRQA 최고 제품 책임자(CPO) 케빈 프랭클린의 2025년 전망

“ 2025년이 다가오는 지금,
우리는 전례 없는 변화와 기회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LRQA는 방대한 데이터와 최첨단 기술, 글로벌 전문성을 바탕으로 기업 리더들이 직면한 핵심 과제를 해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당사가 선정한 올해의 주요 트렌드는 새롭게 시작되는 2025년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으로, 과거 어려웠던 경험을 학습해 트렌드를 예측함으로써 공급망 지속가능성과 리스크 관리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급진적인 변화를 준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2024년은 어슈어런스 4.0과 더욱 민첩하고 실시간 방식의 리스크 관리 필요성이 최대 화두였습니다. 비즈니스 전략에 두루 반영되기 시작한 어슈어런스 4.0에는 단순한 기존 관행의 강화가 아닌, 기업이 컴플라이언스 목표를 달성하고 회사 운영 및 공급망 모두에 걸쳐 더 넓은 가치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채택해야 할 미래 지향적인 사고 방식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2024년에는 또한 기업들이 진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면서 종종 리스크의 대응적 측면에서 기존 데이터 인사이트를 활용하여 보다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를 지원하는 모습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기존의 인권 및 사회적 영향 문제와 공급망의 탄소 발자국을 줄이기 위해 많은 고민거리와 과제가 남아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고무적인 부분은 실질적이고 유의미한 규모의 변화를 위해 필요한 데이터와 기술에 대한 접근이 그 어느 때보다 더 용이하다는 사실입니다.

기업들은 지난 해 컴플라이언스가 단순히 제도나 규제적 차원에서 중요한 이유를 체감하였을 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전략 및 의사 결정에 진정한 의미의 공급망 지속가능성을 왜 핵심 동인으로 고려해야 하는지 배울 수 있었습니다.

2025년 새해는 기업과 공급망에는 중대한 변화가 나타날 전망입니다. 특히, 정치 및 규제 변화, 데이터의 범용성과 인공지능(AI)의 복합적인 영향, 주요 소싱 및 생산 시장에서의 새로운 리스크 등, 올해는 공급망 리스크 관리에 심층적인 변화가 필요한 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공급망 지속가능성, 책임 있는 소싱, 프로그램 및 팀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우리 업계 모든 리더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현실을 만들 것입니다. 향후 예상되는 변화의 규모, 유형 및 속도에 적응하려면 능동적인 학습, 파트너십 및 협력이 필요합니다.

해당 보고서는 LRQA가 새롭게 선보이는 시리즈의 첫 번째 보고서입니다. 공급망 지속가능성, 리스크 관리 및 비즈니스 변화의 중심에서 리더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함께 고민하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개요

글로벌 무역 네트워크의 지속성과 리질리언스는 기업과 공급망의 윤리적 운영에 달려 있습니다.

리질리언스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트렌드를 분석하는데, 특히 책임 있는 소싱 및 리스크 관리와 같은 공급망 지속가능성 전략에 중점을 두고 트렌드를 찾아냅니다. 트렌드 그 내용이 잘 알려진 경우라도 공급망과 실사에 미치는 영향은 계속 변할 수 있습니다. 최근 주목할 만한 공급망 관련 트렌드로는 각종 규제 증가, 노동 리스크 상승, 지속가능성 정책 및 지속가능성을 위한 대비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에 2025년에는 기업들이 리스크를 관리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칠 새로운 트렌드도 등장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데이터 품질 및 AI의 효율적인 리스크 관리, 협력사 관계 및 네트워크의 진화, 이러한 사업적 관계를 형성하는 복잡한 요소들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25년에 가장 큰 주목을 받을 트렌드는 새로 취임하는 트럼프 행정부와 정책 변화가 리스크 환경 및 글로벌 무역 의제에 미치는 광범위한 영향이 될 전망입니다.

해당 보고서가 제시하는 트렌드는 총 100여 개국에서 현재 사업을 벌이고 있는 450여 개 기업 및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를 바탕으로 엄선된 것입니다. 아울러, 해당 보고서와 관련 자료는 국가/지역, 제품 및 개별 협력사에 대한 종합적인 리스크 등급을 부여하는 LRQA의 공급망 ESG 리스크 관리 플랫폼 EiQ, EiQ가 제공하는 심층 데이터와 인사이트를 연 2회 고객과 공유하는 공급망 ESG 리스크 보고서와 함께 사용했을 때 효과가 배가됩니다. 이렇게 LRQA가 트렌드를 공유하는 목적은 데이터 기반 의사 결정을 개선하고 각 기업의 고유한 니즈와 욕구에 맞춘 더 영향력 있는 공급망 지속가능성 및 리스크 관리 프로그램 설계를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목차



트렌드 #1 →
이상과 기대, 준비도 간의
격차 확대



트렌드 #2 →
더욱 복잡해진 규제에 대한 대응



트렌드 #3 →
데이터의 과포화: 고도의 품질과
유용한 인사이트의 필요성



트렌드 #4 →
협력사 관계: 수직 관계에서
수평 관계로의 전환



트렌드 #5 →
예상치 못한 시장에서의 지속되는
리스크: 연례 심사로는 부족한 현실



트렌드 #6 →
ESG 리스크 환경에 영향을 주는
지정학적 변화



트렌드 #7 →
지속가능성 니즈를 뒷받침하는
식품 안전 및 제품 무결성



트렌드 #8 →
계속해 판도를 바꾸는
투자자의 영향력



2025년에 최고의 성과를 보장하는 방법: →
접근 방식의 최적화

#1:

이상과 기대, 준비도 간의 격차 확대

환경, 사회 및 거버넌스(ESG) 문제는 지난 한 해 동안 정치적 계획 및 투자자 우선순위와 밀접하게 연결되며 더욱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공급망 지속가능성과 관련하여 ESG에 대한 사회 전반의 관심도가 높아진 것은 공급망에서 발생한 각종 비리를 폭로하는 언론 보도의 증가, ESG를 향한 기업의 접근 방식에 변화를 가져다 주는 새로운 법규제, 소비자 및 투자자의 지속적인 기대 등을 통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늘어난 관심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ESG 관련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할당되는 자원은 그 일관성이 떨어지는 편입니다. LRQA가 2025년 첫 번째 꼽은 트렌드는 이처럼 지속가능성을 향한 이상과 기대, 준비도 간의 격차에 대한 것입니다. 현재 지속가능성 목표를 공격적으로 수립하는 기업은 많지만, 목표를 실제 추진하고 달성할 준비가 완벽히 되어 있는 기업은 드문데, 그 원인으로는 공급망의 가시성 부족이나 이러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전문 지식의 부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지속가능성을 향한 이상과 기대 및 준비도 간의 격차는 특히 책임 있는 소싱에서 점점 더 중요한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공급망 지속가능성 정책을 유의미한 행동으로 전환하고 지속가능성을 핵심적인 사업 활동에 반영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세계 벤치마킹 연합(World Benchmarking Alliance; WBA)의 연구에서도 이와 같은 트렌드가 나타났는데, WBA 조사 결과 벤치마크에서 평가된 2,000개 기업 중 무려 90%가 필수적인 사회적 기대를 절반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² 구체적으로, 평가에 응한 기업들은 인권, 양질의 일자리 및 윤리적 행동과 같은 주요 항목에서 관련 당국이 요구하는 책임의 4분의 1도 달성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기업의 목표와 실제 성과가 근본적인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현실을 방증하는 것으로, 특히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격차를 해결하는 것은 기업이 글로벌 지속가능성 노력에 유의미한 기여를 하고 장기적인 사회적 및 환경적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 필수적인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SB-2024-Insights-Report-7-August-2024.pdf](#) →

“핵심은 의도가 아니라 실행입니다.”라고 파이낸셜 타임즈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밝혔습니다. “그동안 ESG는 주로 리스크 관리와 평판 개선을 위한 전통적인 비즈니스 모델 위에 더하는 부가적인 정책의 느낌이 강했습니다. 그러나 ESG를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면 수익성 및 지속가능성 간의 상충되는 특성에서 비롯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시장이 단기적 이익을 장기적 리질리언스보다 우선시하는 한, 기업들은 환경을 해칠 것이며, 시장은 각자 근간이 되는 기반을 잠식해 나갈 것입니다.”¹

¹<https://www.ft.com/content/47b334a9-69eb-4cd0-af22-6ad0b92c0ef6> →

#1:

이상과 기대, 준비도 간의 격차 확대

소스 패션(Source Fashion)에서 발표한 '소싱 산업 현황 보고서 (The State of Sourcing Report)'에서는 영국의 대형 및 소형 소매업체들을 대상으로 지속가능성 노력을 저해하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물었습니다. 조사에 응한 대형 소매업체의 75% 이상은 지속가능성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명확한 전략이나 목표가 없는 것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는데, 이는 ESG 규제 요구 사항의 적용 대상이 될 기업들이 책임 있는 비즈니스를 위한 모범 관행을 수립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ESG 대비 태세가 미흡하고 ESG를 향한 현실과 준비도 간에 분명한 격차가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였습니다.

격차가 발생한 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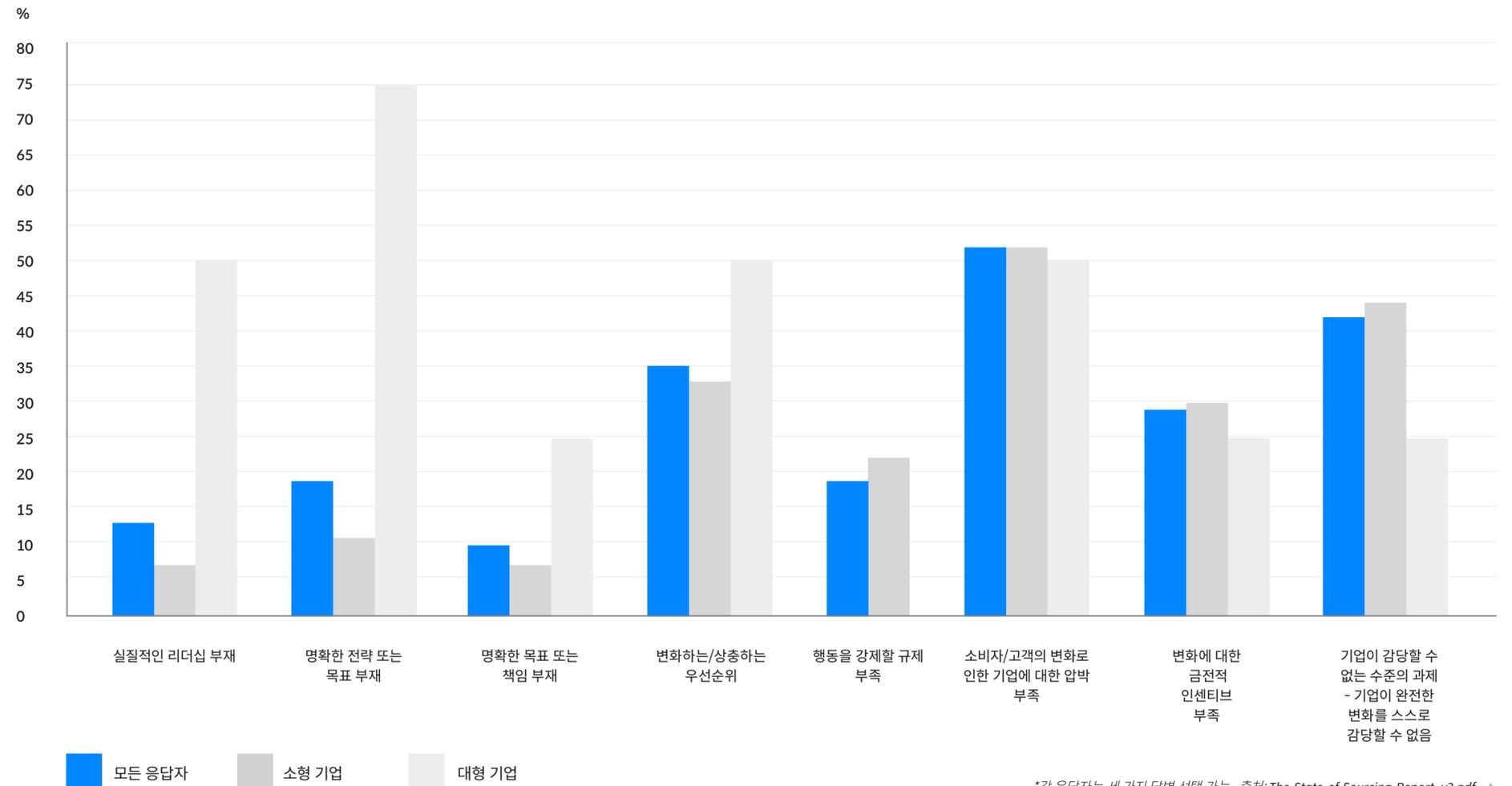
ESG 목표의 저조한 달성도는 가용 자원 부족, 전문 지식 부족, 공급망 복잡성 등 여러 요인에 기인할 수 있지만, 지속가능성 분야 전문가들을 괴롭히는 새로운 요소가 최근 등장했으니, 바로 규제의 복잡성입니다.

새로 도입되는 실사 요구사항과 ESG 보고 법률의 복잡성은 기업들에게 큰 고민거리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미흡한 표준화, 불명확한 준수 요구사항으로 인해 기업들이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호해지고 있는 실정이며, 전 세계적으로 수백 가지의 ESG 규정이 있는 상황에서 기업들은 현재의 경제 및 경쟁 환경과 점점 더 상충하는 규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보편성과 명확성 부족은 의사 결정의 마비를 초래하고 있으며, 지속가능성에 대한 기업의 노력과 전략을 더 복잡하고 까다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³https://cdn.asp.events/CLIENT_Ascentia_4E961A52_5056_B739_54289B84DF34E888/sites/source-fashion-2024/media/PDFs/The-State-of-Sourcing-Report_v3.pdf →



지난 12개월 동안 지속가능성 성과에 진전이 없었다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각 응답자는 세 가지 답변 선택 가능. 출처: The-State-of-Sourcing-Report_v3.pdf →

#1:

이상과 기대, 준비도 간의 격차 확대

지속가능성 목표를 축소하는 기업들

지속가능성 목표와 성과 간의 간극으로 인해 최근에는 지속가능성 목표를 축소하거나 철회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습니다.⁴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는 기사를 통해 지난 한 해 동안 많은 기업들이 정치적 반대, ESG 예산 사업의 저조한 성과 및 지속가능성 투자에 대한 근거 마련 문제 등으로 인해 지속가능성 목표를 축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데이터 관련 준비 및 역량 부족

각종 브랜드 및 소매업체와 함께 작업하면서 확인한 주요 문제 중 하나는, 기업들이 더 많은 데이터와 공급망에 대한 가시성을 보고하면서도 이러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입니다. 데이터의 양이 방대해지면 압도당할 수 있는데, 이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전통적인 책임 있는 소싱 기술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적절한 도구와 전문 지식 없이 이러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조치를 취하는 것은 기업들이 제자리걸음을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데이터 자체가 상당한 리스크가 될 수 있으며, 특히 데이터가 점점 더 공공 도메인에서 사용되고 기자, 학자 및 투자자에 의해 널리 활용되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런 ‘데이터 패러독스’는 인사이트를 의미 있는 의사 결정 및 실행 계획으로 전환하기 위해 더 나은 데이터 관리 및 분석 역량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LRQA의 공급망 ESG 리스크 관리 플랫폼 EiQ 무료 시연 신청 →

지속가능성과 수익성 사이의 갈등

Another major challenge is the ongoing battle between profitability 또 한 가지 중요한 과제는 수익성과 지속가능성 간의 끊임없는 갈등입니다. 기업은 장기적인 지속가능성 목표보다 단기적인 수익을 우선시하는 딜레마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당장의 성과를 보상하는 시장 논리에 의해 심화되어, 즉각적인 재정적 수익을 가져오지 않을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사업에 투자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특히, 경쟁이 치열하고 급진적인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는 경제적 환경에서는 지속가능성에 대한 투자가 더욱 어렵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기업의 이익 마진을 더욱 중요하게 만들며, 투자자를 만족시키기 위한 비용 절감 활동을 요구하는 등의 결과로 이어집니다. 이에, 지속가능성 사업은 종종 피상적으로 남게 되면서 고차원적인 비즈니스 전략이나 사업의 변화를 지원하는 도구보다는 단기적인 컴플라이언스 툴로써 사용되게 됩니다.

지속가능성 목표와 실제 준비도 간의 격차가 점점 커지는 지금, 그 간격을 좁히기 위해서는 가능한 빠르게 지속가능성 전략을 재평가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속가능성 관련 격차를 줄이고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는 효과적인 리스크 관리, 데이터 관련 품질 및 역량 개선, 그리고 공고한 협력사 관계가 매우 중요하며, 앞으로 기업들은 기업과 사회 모두를 위해 오래도록 지속되는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이러한 노력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전망입니다.

⁴<https://hbr.org/2024/08/companies-are-scaling-back-sustainability-pledges-heres-what-they-should-do-instead> →



#2:

더욱 복잡해진 규제에 대한 대응

신규 규제를 통해 도입된 새로운 ESG 의제

공급망 실사 규제의 강화는 지속가능성을 둘러싼 환경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특히, 전 세계 규제당국이 ESG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함에 따라, 지속가능성 전문가들이 참여해야 하는 업무는 기존의 영역을 넘어 광범위하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지속가능성 문제를 담당하는 각종 부서나 사업에 법적 자문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유입되거나 참여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새로운 규제는 환경에 대한 요구 사항을 더욱 강화 시킬 뿐만 아니라, ESG 실사를 통해 고려해야 할 심사 항목의 범위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강제 노동과 온실가스 배출 문제만 살피는 것이 지속가능성 전문가들의 관행이었다면, 이제는 생물다양성과 산림 파괴 등의 문제까지 평가 대상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규제 변화는 기업들이 생물다양성과 산림 파괴와 같은 새로운 의제를 고려하도록 강요하며, 지속가능성에 대한 보다 홀리스틱(holistic)하고 통합된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의 필수 요소로 거듭난 생물다양성과 산림 파괴 문제

여러 ESG 의제 가운데, 먼저 생물다양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유럽연합 산림규제(EUDR)와 같은 규제는 기업들이 공급망에서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책임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가능성 전문가들은 사업 활동이 각 지역의 야생 생물, 서식지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때, 철저한 리스크 분석을 수행하려면 생물다양성 가치가 높은 지역을 식별하기 위해 공급망을 매핑한 뒤, 잠재적인 영향을 평가하고 사업 활동이 미치는 악영향을 줄이기 위한 전략을 구현해야 합니다.

실사 과정에서 이러한 부가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기업은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하고 새로운 법적 요구 사항을 준수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산림 파괴 역시 중대한 환경적 영향 때문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산림 파괴와 관련하여 새롭게 도입되는 규제에 따라 기업들은 최근 의무적으로 공급망 활동이 주변 산림을 파괴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산림 파괴에 대한 관심은 숲을 보존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기후 변화와 싸우는 각종 글로벌 정책이나 사업과도 그 방향성이 일치합니다. 산림 파괴와 관련된 대표적인 규제로는 2023년 6월에 발효된 EUDR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 EUDR에 의거, 기업들은 제품의 원산지를 밝힐 때 최근 벌목된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은 사실과 숲이 황폐화되는 데 원인을 제공하지 않은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¹ 이 규제는 목재, 고무, 소, 커피, 코코아, 팜유, 대두와 같은 상품을 포함하며, EU가 글로벌 산림 파괴 및 황폐화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¹https://environment.ec.europa.eu/topics/forests/deforestation/regulation-deforestation-free-products_en →



#2:

더욱 복잡해진 규제에 대한 대응



새로운 지속가능성 의제 대한 데이터 부족, 지속가능성 전문가들의 깊어지는 고민

위에서 알아본 바와 같이 신규 규제에 따라 실사 범위와 요구 사항은 더 넓고 복잡하게 변하고 있지만, 생물다양성과 산림 파괴에 대한 양질의 데이터가 부족한 것은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다수의 기업들은 특히 특정 상품 수준에서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거나 분산되어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는 결국 포괄적인 리스크 분석을 수행하고 제반 규정을 준수하는 데 고민거리로 작용하게 됩니다. 양질의 데이터 부족은 가시성 및 추적성에 공백을 야기시킴으로써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식별하고 완화하는 노력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지속가능성 전문가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고민과 요구 사항에 대응해야 하는 만큼, 더욱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는 ESG 보고서에 대한 니즈도 커지고 있는데, 이런 보고서를 마련하기 위한 강력한 데이터 수집, 통합 및 분석 툴의 필요성 또한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WBA에서 발표한 2023년 ‘네이처 벤치마크(Nature Benchmark)’에 따르면, 대부분의 기업은 비즈니스, 환경 및 인권이 어떻게 얽혀 있는지를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⁵ 또한, 기업들은 사업 활동 및 공급망이 어떻게 생물다양성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기후 변화에는 어떤 변화를 가져다 주는지 이해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 결과, 기업들은 인권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거나, 부정적인 결과를 촉발하거나, 직접적으로 연관될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공급망 실사 규제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지속가능성 전문가들은 ESG 리스크 분석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접근 방식을 채택하는 추세입니다. 관련 전문가들이 생물다양성과 산림 파괴를 평가에 포함시키게 되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공급망의 환경적 영향을 더 잘 관리하고 변화하는 규정을 준수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홀리스틱한 접근은 환경과 사회적 복지를 모두 보호하는 지속 가능하고 윤리적인 비즈니스 관행을 촉진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특히, 기업들은 환경 문제에 대한 행동이나 조치의 필요성이 윤리나 소비자 감정이 아닌, 자연의 법칙임을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후 변화와 생물다양성의 붕괴는 추상적인 위협이 아니라 기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실제적이고 측정도 가능한 리스크 요인입니다. 미래를 바라보는 기업이라면 ‘지속가능성에 얼마를 투자할 것인가?’라는 질문보다, 이제는 ‘지속가능성을 향한 변화를 더욱 빠르게 추진하고 대응해 이득을 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를 물어야 할 때입니다.⁶

낙수 효과: 직접적인 규제 대상이 아니지만, 향후 대기업이 제시하는 기준에 맞춰야 하는 중소기업(SME) 전망

중소기업(SME)의 경우, 실사 규제의 첫 번째 규제인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CSDDD)⁷ 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지는 않지만, 이러한 법률의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이러한 규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더 큰 기업들이 종종 중소기업을 포함해 협력사에 유사한 수준의 기준을 제시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규제의 낙수 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화된 실사 규제의 대상인 대기업들이 요구 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실사 전략을 강화하게 되면, 공급망 전반에 걸쳐 더 높은 투명성, 리스크 관리 및 ESG 성과 기준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연쇄적인 영향은 전반적인 ESG 전략의 새로운 기준을 설정하는 결과로 이어질 텐데, 중소기업들도 계속해 사업을 유지하고 성장하고자 한다면 법적으로 요구되지 않더라도 이러한 높아진 기대에 적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ESG 관행을 개선함으로써, 중소기업들은 공급망 리스크를 완화하려는 대기업들에게 경쟁력 있고 매력적인 파트너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변화는 단순한 컴플라이언스를 넘어, 성장과 혁신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강력한 ESG 전략을 도입함으로써, 중소기업들은 새로운 시장 기회를 열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추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이러한 규제에 의해 추진된 개선된 실사 전략은 리질리언스가 더욱 강화된 윤리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여 공급망의 모든 이해 관계자들에게 혜택을 안겨줄 것입니다.

⁵2023 Nature Benchmark, World Benchmarking Alliance, <https://assets.worldbenchmarkingalliance.org/app/uploads/2024/03/Nature-Benchmark-2023-Insights-Report.pdf> →

⁶ESG is dead. Long live ESG., Financial Times, 2024, <https://www.ft.com/content/47b334a9-69eb-4cd0-af22-6ad0b92c0ef6> →

⁷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https://eur-lex.europa.eu/eli/dir/2024/1760/oj/eng> →

#3:

데이터의 과포화: 고도의 품질과 유용한 인사이트의 필요성

기술 혁신이 거듭되고 비즈니스와 리스크 관리 접근 방식에 점점 더 중요한 요소로 떠오르면서 책임 있는 소싱을 위한 데이터 품질의 중요성 또한 주요 트렌드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공급망은 복잡하고 광범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공급망 데이터는 정확하고 모든 항목을 아우르는 등 종합적이어야 하며, 품질 역시 양질이어야 하는데,

이러한 고품질의 데이터는 최근 공급망 실사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고품질의 데이터가 없으면 공급망의 투명성이 떨어지게 되고, 기업은 투명성과 책임을 보장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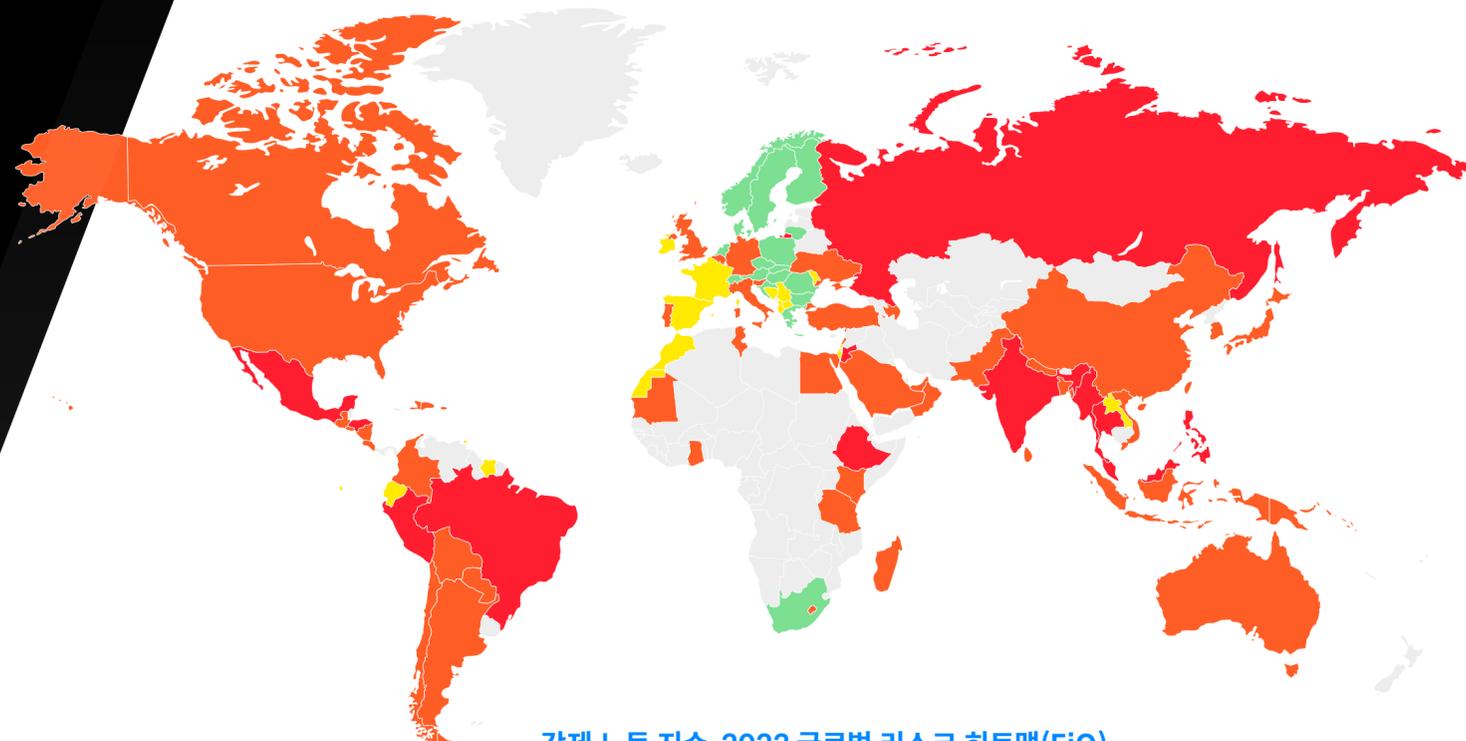
유의미한 양질의 리스크 지표 활용하는 것은 표준화된 방식에 따라 ESG 성과를 측정하고 모니터링하는 데 필수적이며, 이러한 지표들은 기업이 성과를 추적하고 개선이 필요한 영역을 식별하며 업계 표준과 비교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양질의 리스크 지표를 활용함으로써

기업은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리고 운영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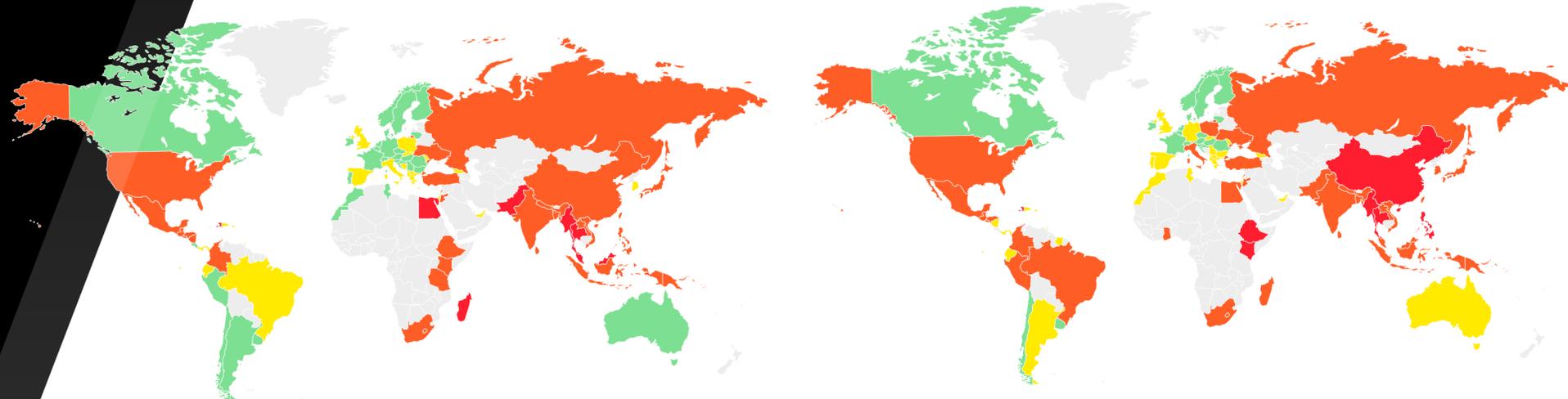
LRQA의 공급망 ESG 리스크 관리 플랫폼 EiQ는 110여 개국, 연간 25,000회 이상의 현장 심사를 통해 얻은 데이터를 활용합니다.

EiQ를 통해 제공되는 리스크 뷰(Risk View)를 보면 데이터 품질이 리스크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눈으로 직접 살펴보고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각 히트맵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의 글로벌 강제 노동 리스크의 심각성을 나타냅니다.



강제 노동 지수, 2023 글로벌 리스크 히트맵(EiQ)



강제 노동 지수, 2019 글로벌 리스크 히트맵(EiQ)

강제 노동 지수, 2021 글로벌 리스크 히트맵(EiQ)

#3:

데이터의 과포화: 고도의 품질과 유용한 인사이트의 필요성

LRQA 데이터에 따르면 2019년 이후 미국에서 강제 노동 리스크가 증가하는 추세인데, 이러한 사례는 언론 조사에서도 점점 더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EiQ는 현장 심사를 통해 발견된 내용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언론 보도와 같은 추가적인 리스크 지표 데이터를 통합해 공유함으로써 리스크에 대한 보다 종합적인 분석을 제공합니다.

양질의 사회적 심사를 제대로 실시하면 기업은 리스크 공시 프로세스를 개선할 수 있으며, 공급망 관련 공시 정보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사 결과(종합 평가)를 분석해 보면, 사용된 방법론에 따라 발견되는 규제 위반 사례의 빈도가 다르게 나타나며, 일부 프로토콜은 다른 것보다 더 많은 위반 사례가 식별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심각한 문제나 '무관용(zero tolerance)' 원칙이 적용되는 사안을 발견할 가능성도 프로토콜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ESG 이슈의 복잡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모니터링 도구와 프로토콜이 효과적인 감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면 지속적인 평가가 필수적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가 없으면 의사 결정도 당연히 어려워지는데, 데이터 품질이 낮으면 공급망 ESG 리스크 패턴을 사전에 모니터링하거나 트렌드를 파악하는 능력이 제한됩니다. 부정확한 데이터는 인권 침해, 환경 피해, 비윤리적 노동 관행과 같은 중요한 문제를 모호하게 가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기업은 공급망 운영과 관련된 리스크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시성 부족은 기업이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데 큰 장애물이 됩니다. 이에, 데이터 품질을 우선순위로 두는 것은 이제 필수적인 요소이며, 책임 있는 소싱 기준을 유지하고 공급망 리질리언스를 보장하려는 기업은 데이터 품질과 투명성을 리스크 관리 전략의 핵심으로 삼아야 합니다.

양질의 사회적
심사를 제대로 실시하면
기업은 리스크 공시
프로세스를 개선할 수 있으며,
공급망 관련 공시 정보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협력사 관계: 수직 관계에서 수평 관계로의 전환

시중 브랜드와 소매업체, 공급업체 간의 관계는 최근 몇 년간 크게 변했으며, 점점 더 거래 중심적(transactional) 관계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경쟁이 치열한 시장 환경에서 비용 효율성, 속도, 유연성을 확보해야 하는 기업 니즈에 의해 주도되고 있습니다. 각 브랜드와 소매업체는 이제 장기적인 파트너십보다 가격과 배송 속도를 우선시하며, 단기적인 이익과 즉각적인 수익 창출에 집중하는 경향이 뚜렷해졌습니다. 이러한 거래 중심적(transactional) 접근 방식은 공급망을 더욱 단편적으로 만들며, 기업들은 언제든지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는 협력사로 변경하는 일이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공급망 내에서의 협상력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데, 관계가 점점 거래 중심으로 변하면서 협력사의 협상력이 약화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비용 절감과 촉박한 납기 준수에 대한 끊임없는 압박은 협력사 운영에 부담을 주며, 이는 결국 품질 저하와 지속가능성 기준의 약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협력사를 활용해야 하는 브랜드나 소매업체 또한 공급망 안정성과 윤리적 조달과 관련된 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공고한 장기적 파트너십이 사라지면 투명성과 신뢰가 약화되어, 환경 및 사회적 기준을 준수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집니다. 결과적으로, 거래 중심적 접근 방식은 단기적으로는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공급망의 안정성과 리질리언스를 저해할 수 있어 반드시 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협력사와의 협업은 가치 사슬 전반에서 정렬(alignment)과 신뢰, 안정성을 보장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기업이 협력사와 긴밀하게 협력하면 원활한 소통이 가능해지고, 공급망 리스크를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동시에, 전체적인 안정성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협업을 통한 공동의 목표 설정과 프로세스 공유는 물류 최적화, 재고 관리 개선, 시장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 또한 가능케 합니다. 맥킨지(McKinsey)의 조사에 따르면, 협력사와 적극적으로 협업하는 기업들은 경쟁사 대비 더 높은 성장률, 낮은 운영 비용, 그리고 더 큰 수익성 등 효과를 누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협업과 협력사 참여도는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강화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협력사 관리자들이 핵심 인권 및 환경 문제에 대한 모범 사례를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급망 전반에서의 데이터 중앙화와 소통 개선은 신뢰와 협업을 증진시키고, 더욱 강화된 파트너십 구축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EIQ에서 → 확인하세요.

협력사 및 바이어 협업 현황

협력사

- 일관되지 않은 기대치
- 문제의 근본 원인보다 표면적 사안에 집중
- 심사 시스템의 한정된 효과
- 근로자의 실질적인 참여 부족
- 정부의 법률 집행 부족

바이어

- 심사가 전체적인 상황을 반영하지 못함
- 결과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
- 실질적인 영향력 부족
- 높은 비용 부담
- 재심사의 낮은 효과
- 긍정적인 내러티브 및 이해 관계자의 신뢰 부족

여
페
어
표

*Taking supplier collaboration to the next level, Mckinsey, 2020, <https://www.mckinsey.com/capabilities/operations/our-insights/taking-supplier-collaboration-to-the-next-level> →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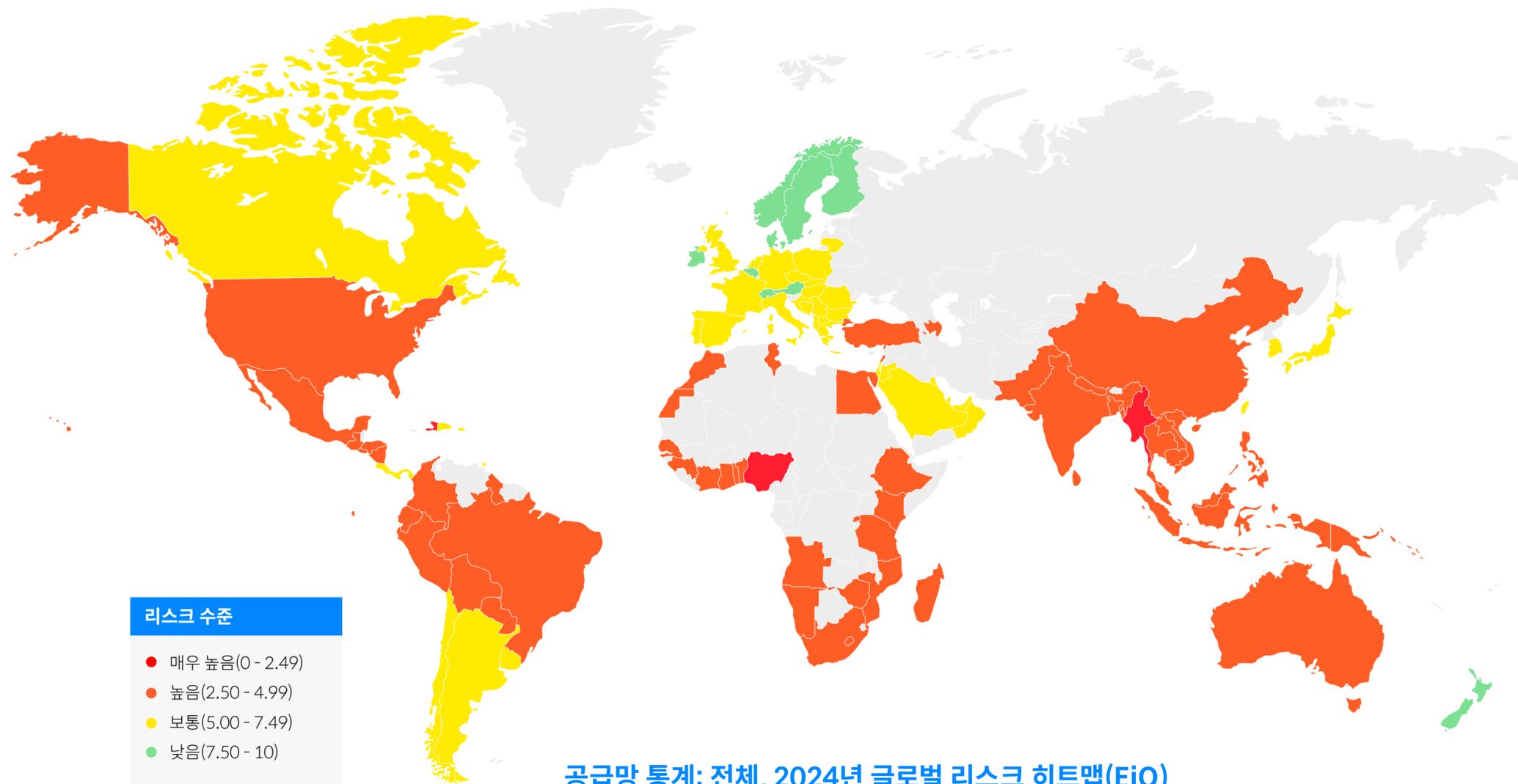
예상치 못한 시장에서의 지속되는 리스크: 연례 심사로는 부족한 현실

2024년이 브랜드와 소매업체에 준 가장 큰 교훈 중 하나는 공급망에서 노동 문제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면 철저히 조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위험 지역으로 간주되던 시장에서도 주요 ESG 리스크가 점점 더 자주 드러나고 있으며, 이는 기업 공급망 전략을 다시 평가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강제 노동, 아동 노동, 법정 임금 준수, 보건 및 안전과 같은 핵심 사안들은 여전히 공급망 현장에서 큰 주의가 필요한 문제들입니다.

리스크는 어디에나 존재하며, 그 규모는 광범위하고 해결하기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리스크로부터 안전지대인 지역이나 산업은 더 이상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기업들은 이제 예기치 않은 곳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숨겨진 리스크를 간과하고 넘어갈 여유가 없습니다.

EiQ의 2024년 공급망 전체 리스크 지수 분석에 따르면, 평가된 지역 중 50% 이상이 공급망 위반과 관련하여 높은 또는 극심한 리스크 수준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호주, 남아프리카공화국, 미국과 같은 국가들은 중간 위험 수준에서 높은 위험 수준으로 악화되었습니다. 2024년 EiQ 데이터를 보면 전 세계적으로 아동 노동 리스크 또한 증가한 사실과, 미국과 같은 국가에서도 여전히 아동 노동과 관련한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탈리아에서는 강제 노동 리스크가 여전히 심각한 문제로 남아 있으며, 호주에서는 외국인 이주 노동자에 대한 노동권 침해 리스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

예상치 못한 시장에서의 지속되는 리스크: 연례 심사로는 부족한 현실

최근 새로 대두되는 여러 리스크를 평가할 때, 단편적으로 컴플라이언스 여부만 따지는 전통적인 심사는 불공정한 임금, 부적절한 고충처리 메커니즘, 또는 시정 노력과 같은 더욱 복잡한 문제들을 포착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더욱 세밀한 접근 방식, 즉 공급망 리스크에 대한 종합적인 시각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데이터 소스를 균형 있게 활용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공급망 전체 관리 프레임워크 내에서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의 혁신은 리스크 평가와 리스크 완화 전략을 개선시킬 수 있는데, 이러한 홀리스틱한 접근은 연례 심사 시 종종 간과될 수 있는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보다 근본적인 리스크는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종 가장 중요한 리스크는 눈앞에 보이면서도 간과되어 위기가 되어서야 비로소 인식됩니다.

정확한 데이터는 이러한 문제를 미리 예측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더 정교하고 세밀한 데이터 세트의 활용과 분석이 필요한 이유를 더욱 강조합니다.

일전에 중국 근로 시장의 과로 문제가 애플과 뉴욕타임스의 주요 보도를 통해 보도된 사례가 있었는데, EiQ는 데이터를 통해 두 매체에 한 발 앞서 해당 문제를 파악하고 밝힌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EiQ 데이터는 미국 내 하청업체 문제, 임금 미지급, 아동 노동과 같은 이슈가 언론의 주목을 받기 전에 이미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도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리스크를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기업들은 더욱 리질리언스가 강하고 윤리적인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으며, 점점 더 깐깐해 지는 글로벌 감시 속에서도 신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6:

ESG 리스크 환경에 영향을 주는 지정학적 변화

정책 변화와 행정부 교체는 공급망의 ESG 리스크 환경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B이민 정책 강화와 반(反) ESG 기조 확산 등 변화 속에서, 기업은 민첩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효과적으로 적응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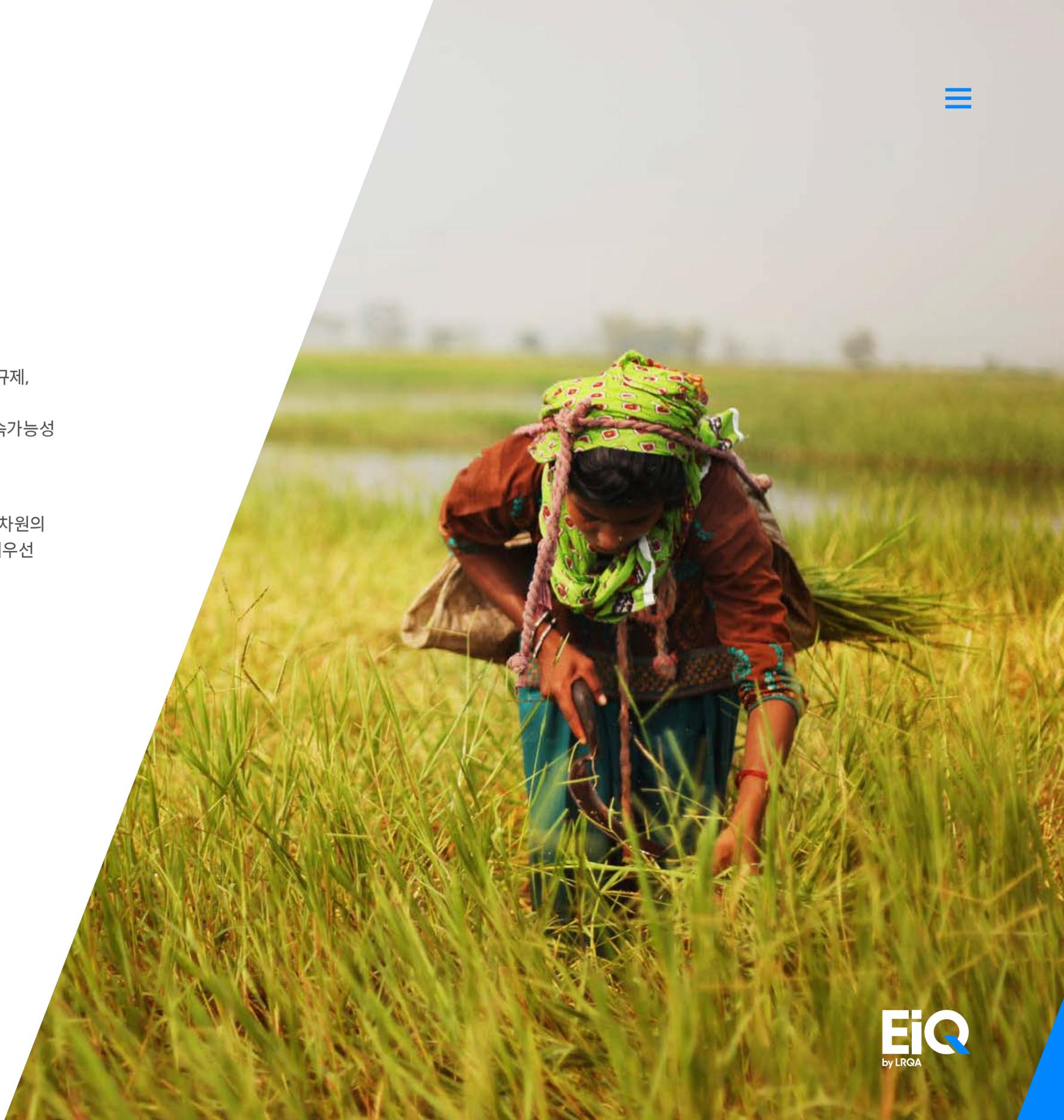
최근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 공급망은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 완화 요구와 EU 등 지역에서의 강화된 기업 규제 요구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야 하는 고민에 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미국 정부가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추진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글로벌 무역에 큰 영향을 미쳐 2025년 트럼프 행정부가 보호무역에 치중한 관세 정책을 시행할 경우, 이는 리스크 환경을 더욱 변화시킬 것입니다.

2024년 선거 이전부터 ESG에 대한 반발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감시가 **특히 미국**에서 강화되고 있었는데, 아울러, 이민 정책 강화 역시 외국인 이주 노동자와 관련된 공급망 리스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시행되는 새로운 규제, ESG 요소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 증가, 윤리적 소싱을 요구하는 소비자들의 목소리 확산 등은 기업들이 지속가능성 노력을 지속적으로 우선시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새로운 행정부의 의지에 따라 ESG 논의가 더 변화할 가능성이 있지만, 기업은 주(州) 차원의 법률, 글로벌 차원의 실사 전략 강화, 윤리적 소싱에 대한 관심을 반영해 최우선 과제로 유지할 가능성이 상당히 큼니다.



#6:

ESG 리스크 환경에 영향을 주는 지정학적 변화

주(州) 차원의 기후 규제는 유지될 전망, 글로벌 법규는 미국 기업에도 적용

트럼프 대통령이 2025년 1월 취임 후 미국을 파리 기후협약에서 재탈퇴시키겠다고 밝힌 가운데, 연방 차원의 기후 정책에는 변화가 예상됩니다.⁹ 단, 캘리포니아의 기후 보고법과 같이 주(州) 단위로 시행 중인 법률은 앞으로도 계속해 적용될 것입니다.

특히, 2024년 9월에 법으로 제정된 기후 기업 데이터 책임법(CDDAA)은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Scope 1, 2, 3 배출량 공시를 의무화하였습니다.

한편, 유럽연합(EU)의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SRD) 및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과 같은 규제는 EU에서 운영되는 미국 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예정입니다.

⁹Here's what we know about Trump's planned executive orders so far, Reuters, 2024 <https://www.reuters.com/world/us/heres-what-we-know-about-trumps-planned-executive-orders-so-far-2024-12-17/> →

관세 인상과 디커플링, 공급망 복잡성 증가 가능성

글로벌 무역 정책이 변화함에 따라 공급망의 복잡성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관세를 추가로 인상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는 향후 리스크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관세가 높아지면 기업은 공급망 전략을 재검토하고,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거나 다른 지역으로 소싱을 이전하는 방안을 고민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기업을 새로운 사회적 리스크에 노출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규제가 상대적으로 덜 엄격한 신흥 시장으로 생산이 이전되면, 노동 및 인권 침해 위험이 증가할 가능성이 큼니다.

또한, '생산 디커플링(production decoupling)'으로 인해 공급망의 연결 고리가 늘어나면, 투명성 확보와 관리 시스템 운영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기업들은 다음과 같은 취약성 증가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경영시스템 문제: 문서화 및 경영 관행과 관련된 이슈

투명성 문제: 생산이 중국에서 규제가 덜 엄격한 시장으로 옮겨갈 경우, 투명성과 추적 가능성이 더욱 복잡해질 수 있음

기업들은 협력사가 윤리적인 노동 기준과 환경 규정을 준수하도록 보장해야 하며, 이를 위해 더욱 강화된 실사 및 모니터링이 필요하게 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노동 정책이 이주 노동자 리스크에 미칠 영향

국경 단속 강화 조치가 예고됨에 따라, 향후 이주 노동자들의 인권 침해 리스크가 더욱 심화될 우려가 높은 상황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민 정책이 엄격해 질수록 취약한 노동자들은 비공식 경제로 밀려나 착취당할 위험이 커지고,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워집니다.¹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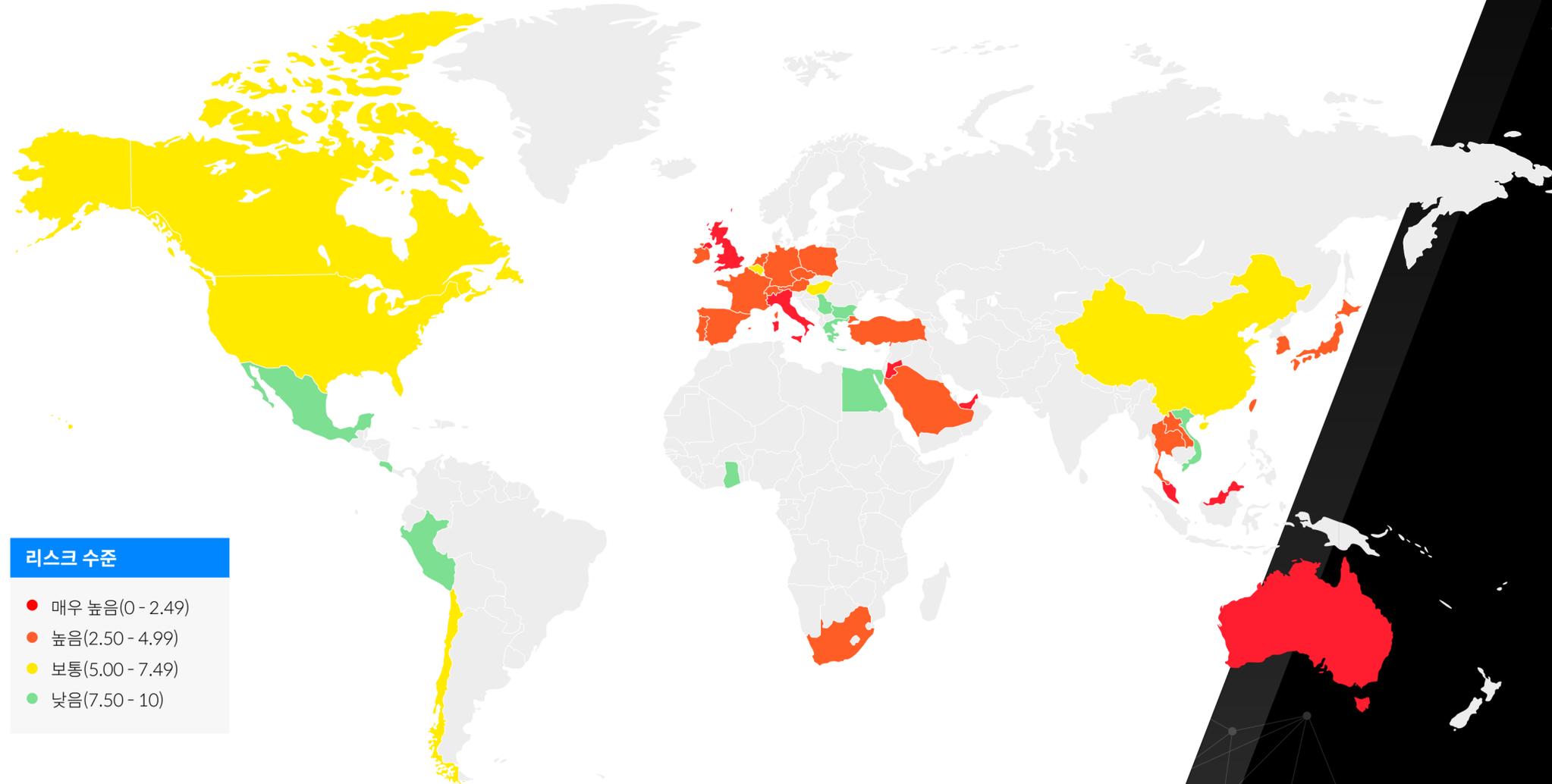
트럼프 행정부 1기 당시에도 국경 단속이 강화되면서 농업 및 건설업에서 심각한 노동력 부족이 발생했고, 이는 소비자 물가 상승과 기존 노동자들의 부담 증가로 이어졌는데, 이러한 상황은 노동 착취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EiQ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1년간 미국 내 이주 노동자 리스크가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새로운 정책이 시행되면 이 같은 긍정적인 변화가 다시 후퇴할 우려가 있습니다.

¹⁰Scott, J., Hale, J.M. & Padilla, Y.C. Immigration Status and Farmwork: Understanding the Wage and Income Gap Across U.S. Policy and Economic Eras, 1989–2016. *Popul Res Policy Rev* 40, 861–893 (2021). <https://doi.org/10.1007/s11113-021-09652-9> →

#6:

ESG 리스크 환경에 영향을 주는 지정학적 변화

이주 노동자 노동 지수, 2024 글로벌 리스크 히트맵(EiQ)



기업들은 실사 전략에서 공정한 채용 프로세스를 우선시하고, 협력사와의 협업 및 리스크 개선 노력을 강화함으로써 공급망 내 외국인 이주 노동자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단, 이를 위해서는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되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고충 처리 메커니즘을 도입하고, 협력사가 모범 사례 및 공정한 근무 조건을 준수하도록 보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SG 정책에 대한 반발로 인해 지속가능성 정책을 폐기한 기업은 없지만, ESG를 전략적 비즈니스 목표와 더욱 긴밀히 연계하고 반영할 필요성을 느끼는 기업은 늘고 있습니다.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환경적으로 책임 있는 기업이 재무적으로 더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는 동의하고 있지만 미국에서는 반(反) ESG 정서가 확산되고 있으며, 이는 새 행정부의 정책에도 반영되고 있습니다. 반면, EU는 ESG를 적극 지지하며 규제 강화와 더욱 엄격한 정책을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글로벌 기업들은 이러한 상반된 흐름을 신중하게 조율해야 하며, 지속가능한 무역이 단편적인 컴플라이언스를 넘어서는 요소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7:

지속가능성 니즈를 뒷받침하는 식품 안전 및 제품 무결성

식품 안전성과 제품 무결성, 지속가능성과 책임 있는 소싱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식품의 원산지에 대한 투명성을 더욱 요구하는 가운데, EUDR과 같은 법률이 원자재 소싱과 식품 제품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자사 제품이 안전하게 소비될 뿐만 아니라, 윤리적으로 생산되고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보장해야 하는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기업들은 식품 안전, 공정한 노동 조건, 환경 보호를 우선시하는 지속가능한 소싱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러한 홀리스틱한 접근법은 제품이 원산지에서 소비자 식탁에 오기까지 무결성을 유지하도록 하며, 소비자의 신뢰와 충성도를 높이는 동시에 공급망 내 지속가능성을 촉진합니다. 기업이 책임 있는 소싱을 운영에 통합하면, 현대 식품 생산의 복잡한 과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더욱 리질리언스가 강하고 윤리적인 식품 시스템 구축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기후 변화가 식품 부문에 미치는 영향도 점점 더 뚜렷해 지고 있으며, 안전하고 안정적인 글로벌 식량 공급 보장을 위한 어슈어런스 차원에서도 중요한 요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식품 유통업체들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는, 기후 조건 변화에 맞춰 소싱 전략을 적응시키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대체 원자재 및 새로운 생산 지역을 모색해 두는 것이 필수입니다.

이와 더불어, 식품 안전과 보안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운송의 중요성 또한 점점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잇따른 기상 이변과 전 세계적인 기온 상승은 공급망을 혼란 시키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식품을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운송하는 방법에 대한 고민거리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기술의 역할

기술과 혁신은 식품 산업이 직면한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전망입니다. 물론, 전통적으로는 디지털 전환을 수용하는 데 더딘 식품 산업이었지만, 지금은 그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많은 기업들이 너무 많은 기술을 너무 빠르게 도입하려 하면서, 정작 기술이 비즈니스 목표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방향성이 부족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기술을 활용해 실사를 최적화하고 투명성을 높이는 것은 패션 브랜드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식품 산업에서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요소입니다.

수자원 관리, 포장재 관련 혁신 및 재생 농업의 도입과 함께, 신생 법안의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는 등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2025년은 식품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내재화 하는 데 있어 중요한 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8:

계속해 판도를 바꾸는 투자자의 영향력

지속가능성 전략의 가치에 대한 다양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데이터는 지속가능성 목표를 우선시하는 기업이 투자자들에게 더 매력적으로 보인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딜로이트(Deloitte) 연구에 따르면 조사에 응한 투자자의 83%가 지속가능성 정보를 기본 분석에 반영하고 있었는데, 이는 지속가능성을 우선시하는 기업에 대한 강한 선호도를 보여주는 결과로 풀이해볼 수 있습니다.¹² 이처럼 ESG 전략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은 2025년 주요 트렌드로 자리 잡을 것이며, 기업들이 공급망 ESG 실사를 관리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KPMG 또한 전 세계 투자 의사 결정자의 70%가 지난 12~18개월 동안 ESG가 투자 거래의 핵심 요소가 되었다고 연구를 통해 보고하였습니다.¹³ 이처럼 ESG 요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기업들은 공급망 내 리스크를 조기에 식별하고 완화하기 위해 더욱 철저한 실사를 수행하게 되고 있습니다.

ESG 리스크와 기회를 조기에 파악하는 것이 점점 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이유는, 이를 통해 규제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기업의 전반적인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규 변화 또한 이러한 흐름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CSDDD) 및 EU 산림전용방지법(EUDR) 등은 기업들이 더욱 엄격한 ESG 기준을 도입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 역시 기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더욱 강하게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업들은 공급망 전반에서 ESG 리스크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기적인 보고를 제공해야 하는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듯 강화된 모니터링은 기업의 컴플라이언스를 보장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의식 있는 투자자들의 기대치를 기업이 충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도 합니다.

ESG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들은 투자자의 신뢰와 자금 조달 기회를 잃을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ESG 실사는 단순한 컴플라이언스를 넘어 장기적인 기업 가치와 지속가능성을 창출하는 과정입니다. 책임 있는 소싱과 강력한 ESG 실천을 통해 리질리언스가 확보된 공급망을 구축하면, 기업들은 투자자를 유치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습니다.

2025년에는 ESG 전략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이 더욱 증가하면서, 기업들은 공급망 ESG 실사를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우선순위로 삼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규제 요구사항, 표준화, 데이터 품질, 지속가능성의 모범 사례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정렬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¹²How can the enterprise earn investor trust through sustainability disclosures, Deloitte, 2024. <https://www.deloitte.com/global/en/issues/climate/earning-trust-with-investors-through-better-sustainability-data.html> →

¹³Global ESG due diligence study 2024, KPMG, <https://assets.kpmg.com/content/dam/kpmg/xx/pdf/2024/06/esg-due-diligence-study-2024.pdf> →

“책임 있는 투자자들은 유의미하고 실질적인 인권 리스크를 해결하는 데 있어 인권 실사(HRDD)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만약 기업이 자사의 인권 영향을 식별하고 해결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투자자들 역시 자신들의 투자 활동에 대한 실사를 수행할 인권적 책임을 다할 수도 없고, 해당 투자 활동과 관련된 재무적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수탁자 의무를 이행할 수도 없습니다.”

레베카 드윈터-슈미트 (Rebecca DeWinter-Schmitt)

인권을 위한 투자자 연합(Investor Alliance for Human Rights) 부국장

2025년에 최고의 성과를 보장하는 방법: 접근 방식의 최적화

2025년은 실천하는 한 해. LRQA는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지식, 데이터,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24년은 ESG 목표와 준비도 간의 격차가 확대된 한 해였습니다. 다행히도 이제는 기업들이 유의미한 변화를 만들어 내고 기존 규정이나 표준에 대한 컴플라이언스를 지원하는 각종 톨과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데이터 품질을 미흡한 성과의 핑계거리로 삼을 수 있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에, 기업은 단순 컴플라이언스를 넘어 윤리적 책임에 집중해야 합니다.

2025년을 맞아 기업들은 데이터 품질을 개선하고, 협력사와의 긴밀한 협력을 촉진하며, 인권 보호 및 환경 문제를 우선시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고품질의 정확한 데이터는 효과적인 의사 결정 및 리스크 관리의 초석이 될 것입니다.

업계 전체가 힘을 모으면, 올해를 기업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해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규제가 기업들의 동력을 떨어뜨리는 요소가 아닌, 더 강력한 전략을 실행하고, 중소기업(SME)과 대기업 모두를 위한 새로운 시대를 주도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합니다. 기업들은 고급 데이터 분석 및 투명성 도구에 투자함으로써 공급망을 더욱 명확하게 파악하고, 취약점을 식별하는 동시에, 강력한 리스크 완화 전략까지 실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리스크 대응 및 역량 강화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공급망 리더들이 보다 선도적이고 전략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하고, 윤리와 책임, 지속가능성의 중심에 서야 할 때입니다.

“그 어떤 기업이나 정부, 단일 조직도 이 복잡한 변화를 단독으로 헤쳐 나갈 수 없습니다. 정책을 수립하는 입안자를 비롯해 금융 부문, 기업, 시민 모두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모두 함께 규제 체계를 구축하고 오늘날 경제의 사회적·환경적 영향을 줄이는 생산 및 소비 패턴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BSR, The Elephant in the Sustainability Room.

어슈어런스 4.0 시대, 즉 새로운 리스크 관리의 시대를 본격적으로 맞이한 만큼 기업은 전통적인 심사를 뛰어넘어 실시간 데이터에 집중하고 SI와 같은 도구를 활용하여 리스크를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화되는 규제와 사회적 감시 속에서, 기업들은 이제 ESG를 단순한 컴플라이언스의 문제가 아닌, 핵심 경영 전략으로 통합해야 할 시점입니다.

2025년에는 리스크와 기대 수준이 더욱 높아졌으며, 기업들은 변화에 적응하고 스스로 역량을 강화할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수동적인 리스크 관리에서 벗어나 데이터 기반의 능동적 대응으로 전환할 수 있어야 합니다.

EiQ 소개:

LRQA의 공급망 ESG 리스크 관리 플랫폼 EiQ는 공급망 ESG 리스크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책임 있는 소싱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실사 규정에 대한 컴플라이언스를 지원합니다. 플랫폼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과 공급망 지속가능성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확인하려면, 무료 데모를 (<https://www.eiq.com/request-a-demo/>) 요청하세요. 요청 내용을 확인한 뒤, LRQA 담당자가 연락을 드립니다.

LRQA 소개:

LRQA는 선도적인 글로벌 어슈어런스 파트너로서, 지난 수십 년 간 평가, 어드바이저리, 검사 및 사이버 보안 서비스 분야에서 쌓은 전문 지식과 데이터 기반의 인사이트를 활용해 새로운 리스크 시대를 맞이하는 고객을 지원합니다.

현재 LRQA는 각종 수상 경력에 빛나는 컴플라이언스, 공급망, 사이버 보안, ESG 분야 전문가 등 6,000여 명의 임직원과 함께 160여 개국, 약 61,000여 곳의 고객사를 대상으로 리스크 예측, 완화 및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항상 회사 임직원, 고객, 지역 사회 및 환경을 위한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문의

더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https://eiq.com>)를 방문하거나, 전화 +82 2 736 6231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LRQA
1 Trinity Park
Bickenhill Lane
Birmingham
B37 7ES